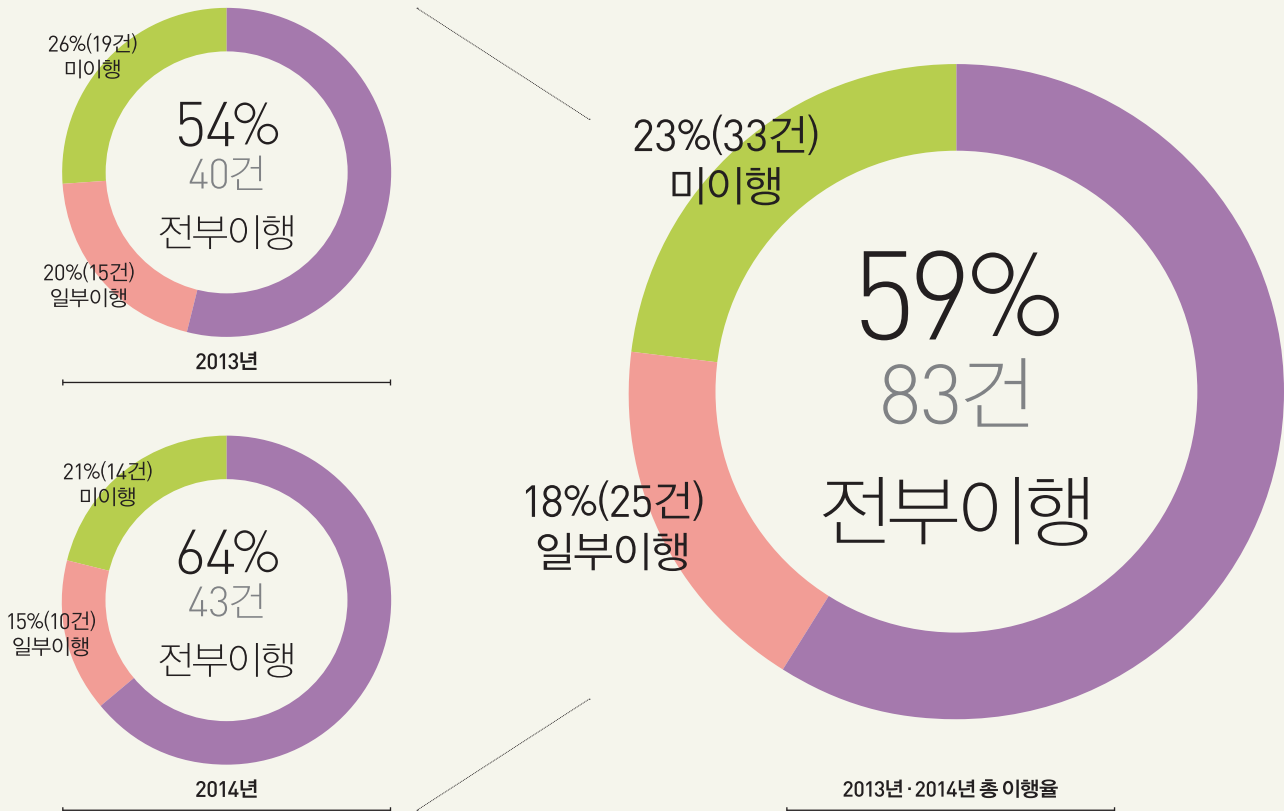




성 주류화 제도, 시민이 점검해봤어요

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조치사항 이행율



올해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과정의 일환으로 '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'을 실시했다. 이번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. 첫째, 2013년·2014년에 작성된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했다는 점. 둘째, 특정 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성평등 조치사항 및 사업 운영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실질적인 정책수행 상황을 살펴봤다는 점이다.

이행점검은 2013년·2014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성평등 조치사항이 기재된 사업 141건을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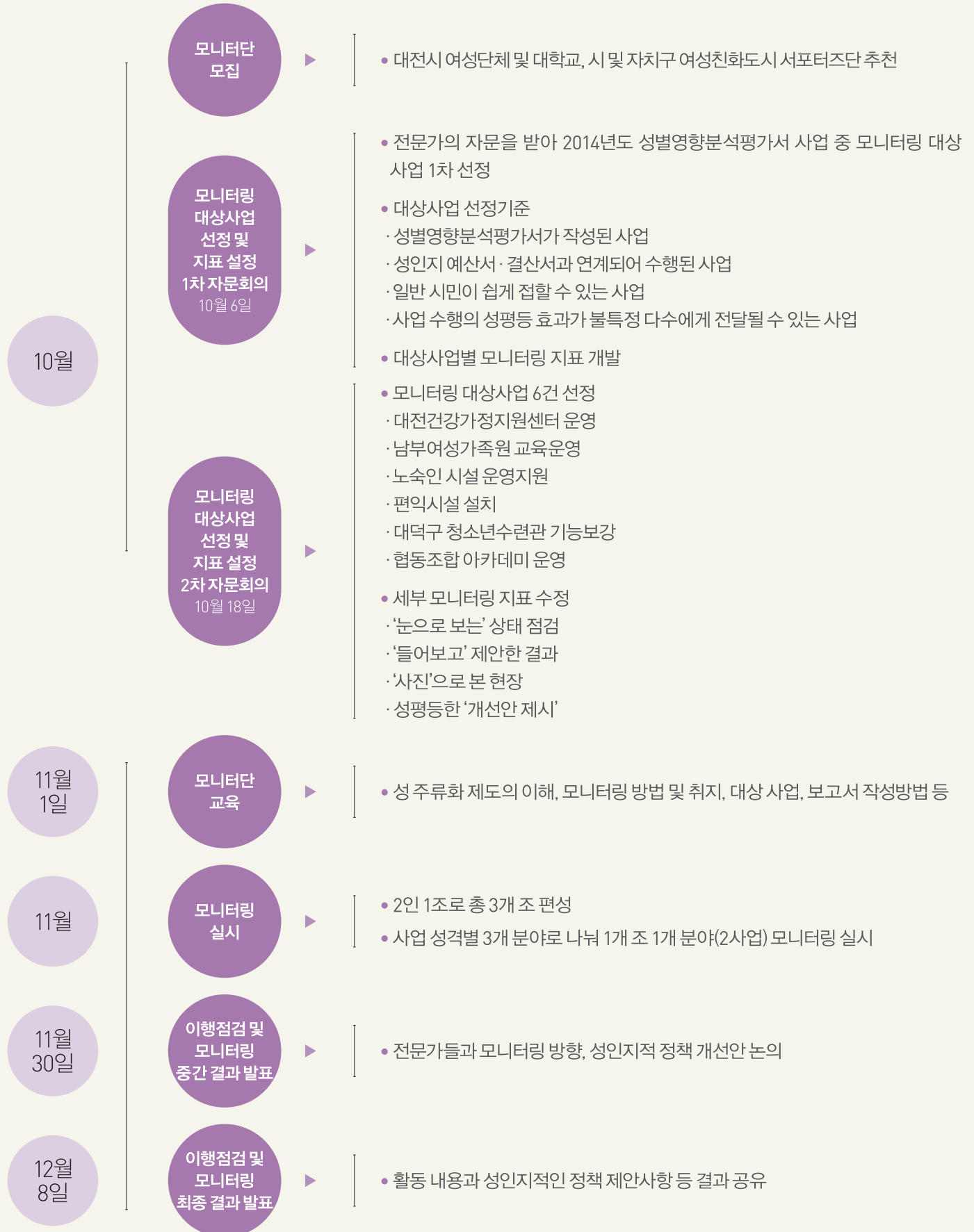
증빙자료를 '직접적인 증빙자료', '간접적인 증빙자료', '증빙자료 없음'으로 분류·분석했다. 이번 이행점검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행현황을 '전부이행', '일부이행', '미이행' 등 3가지로 분류해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총 141개 이행점검 대상사업의 조치사항 이행율은 전부이행 59%(83건), 일부이행 18%(25건), 미이행 23%(33건)로 나타났다. 전부이행과 일부이행을 조치사항 이행사업으로 본다면, 이행된 사업은 77%(108건)이고, 미이행은 23%(33건)이다. 2013년에 대비 2014년의 전부이행 사업 비율을 보면 54%(40건)에서 64%(43건)로 10%p 상승했다.

모니터링은 이행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2014년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사업 중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시민 모니터단이 심층적으로 살펴본 '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'라고 할 수 있다. 심층

모니터링의 목적은 현장 방문 점검, 이용자 및 담당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시민의 시각에서 성인지적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. 전체적인 모니터링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.

2016 성 주류화 제도 모니터링 진행과정



모니터단은 현장 점검 내용과 그에 따른 다양한 성인지적 개선안을 제안했으며,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. 추후 이행점검 결과 및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안 등은 '2016년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운영' 보고서로 발간된다.



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

6개 대상사업 모니터링 현장 및 성인지적 개선안 주요내용

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



센터 전경

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, 교통 접근성이 낮아 이용자가 적은 편임

-
- 거점 센터로서 이용률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를 제한함
-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됨

남부여성가족원 교육운영



1층 로비

다양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 떨어짐

-
- 유휴공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함

노숙인 시설 운영지원



옥상 가건물에 위치한 여성 숙소

누수로 얼룩진 벽지와 지저분한 침구

-
- 여성노숙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 확충이 요구됨
- 여성노숙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함

편의시설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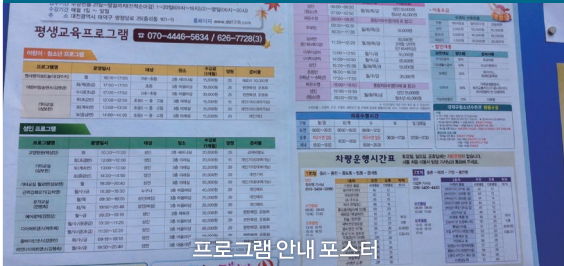


중촌동 진입로 계단 옆 하천 공중화장실

도로와 인도의 높이가 다르고 경사가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이 어려움

-
- 보행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확충 필요함

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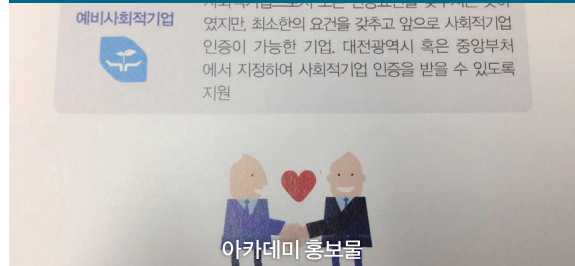


프로그램 안내 포스터

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보다 성인 여성 대상 프로그램에 편중됨

-
- 어린이나 청소년, 성인 남성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한함
-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이 필요함

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



아카데미 홍보물

홍보물 속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주체를 양복, 넥타이 차림의 전문직 남성으로 표현함

-
- 경력단절여성, 장애인,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넓힐 필요 있음